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9호 [루게 제23111호] 주제99 (2010)년 6월 8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단에 참석하시였다.

당과 군대, 국가 간부들과 우 당위원장들, 국방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앉았다.

최태복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

들이 토의되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소환 및 선거에 대하여

2.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의정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제의에 따라 김영일대원을 내각 총리에서 소환하고 최영림대원을 내각총리로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의정이 토의되

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제의에 따라 장성태대원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일부 내각성원들을 소환 및 임명하였다.

박범기대원, 오수용대원, 한광복대원을 내각부총리 겸

박명선대원을 내각부총리에서, 리주오대원을 경공업상에서, 정연파대원을 식료일용공업상에서, 박학선대원을 체육지도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최영림대원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하였다. 최태복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본사정지보도반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방송이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 출진전대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방송이 2일에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에 출진전대공연을 관람하시면서 무적의 대군 조선인민군이 조국의

방선을 사수하고있기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출연자들이 군인들의 고상한 도덕풍모, 보람찬 군무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에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위력을 힘있게 파시전대 대하여 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전환활동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 나라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 인터넷통신 《뉴스. 루》와 일본의 고도통신, 미국의 VOA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 《인민적령도로 빛나는 헌신의 자욱》

요르단에 있는 조선인민군의 편대성 및 조선통일지 아랍위원회 위원장 마르완 수다흐가 5월 25일 인터넷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사건들을 모시고 《인민적령도로 빛나는 헌신의 자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시대를 펼쳐 나가시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0세기에 이어 새 세기에도 인민들의 심장에 불길을 지펴주시며 혁명의 진군을 빛나는 승려로 이끌고 계신다고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나라 인민들이 부강조국건설에서 정진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이끄신다고 하면서 글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장과 농촌, 발전소건설장과 과학연구기지 등 나라의 곳

곳을 찾으시는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창조적체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일군들과 로동자, 지식인, 농장원들을 만나시며 그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해주고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피주신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 경제강국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열쇠도 찾아주시고 방도도 명시하시면서 인민들을 새로운 비약과 혁신으로 고무하신다.

삼복철강행군을 이어가시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시고 나아가 길을 밝혀주시는 그의 고매한 품모는 오늘날도 만사함을 격동시키고있다. 어느 단위를 찾으시든 장군님께서 공장과 농촌, 발전소건설장과 과학연구기지 등 나라의 곳

곳을 찾으시는데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현지지도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 주체철강생체계의 완성,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CNC화의 추진, 주체섬유 비단물산의 생산과 같은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온 원동력이다.

그이의 현지지도는 혁명적이고조선적양양을 현실속에서 천만대중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감화력으로 되고있으며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인민적령도의 승고한 귀감으로 빛나고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일령도자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결심을 안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 기념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블레쥬 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메히고 메히꼬주 내셔널아트에서

는 집회와 예술공연이, 로씨야 모스크바주 사흐스카야시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시회 개막식이, 브라질 파라나주 푸미메리에서는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 개막식이 5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특히 최근간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일떠세운 조국의 벽한 현실에 대하여 더 잘 알도록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탄생 100돐 기념 브라질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편대성 브라질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뜻깊은 계기들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진전시회를 진행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은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나날이 변모되어가고있다.

우리는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마

라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정일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광란적으로 벌리는 악랄한 모략소동을 견결히 규탄하며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의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로씨야 모스크바주 사흐스카야시 부시장은 조선인민은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근면한 인민이다, 전시품들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메히꼬주 예술공연이, 로씨야 모스크바주 사흐스카야시에서 블레쥬 제57호를 발행하였다.

블레쥬는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0년 6월 19일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지도사상이 투철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그때 김정일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리념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의지를 밝히시였다.

그이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이 시대와 혁명의 요구,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으며 그를 현시대, 자주시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일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포하신 그이께서는 당안에 주체사상이 팍 들어차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사업을 오로지 당의 창건자이신 김정일주석의 구상과 의도, 방식대로 해나가시며 당건설과 활동의 모든 분야에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정일이 일심단결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을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한 조직사상적결체로 만드시였으며 정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한데 기초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철통같이 움직이고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완벽한 혼연체제를 이루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원들모두를 자신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며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필승불패의 당으로 위용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최영림동지



주제 19 (1930)년 11월 20일에 출생하였다. 동지는 인민군대에 복무하고 제대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기사의 자격을 받았다. 동지는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파장, 부부장, 제1부부장, 부장, 금수산의사당서기실 책임서기, 정무원 부총리, 중앙검찰소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사임하였다. 동지는 주제 98 (2009)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사임하였다.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의 자욱마다에는 가슴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북변에 자리잡고있는 한 신발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꿈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모시게 된 이목 일꾼들과 노동자들의 기쁨은 비길데 없었다. 몇해전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고 이곳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 생산공정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공장이 력사도 오래고 생산능력도 있는것만큼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질 좋은 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주시였다. 력사의 그날을 되새기시는듯 깊은 감회에 잠기시여 공장구내를 정성껏 둘러보시는 그이를 우리 르며

일꾼들은 가슴이 젖어들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신발을 더 많이 보내줄 일념이 얼마나 강렬하시던 전진길에 쌓인 피로를 무실 사이 없이 현지도의 머나먼 길을 씩없이 달려서 또다시 찾아주시는것이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신듯 공장실내를 로해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공장에서는 자재의 힘으로 설비현대

화를 다그치고 수많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생산의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왔다. 뿐만 아니라 생산건물들을 개건보수하고 온정원, 동물사 등 문화시설들을 훌륭히 꾸려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켰던 것이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장에서 새로 꾸린 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여기서 나오는 생산품의 질이 좋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생산을 장성시켜야 한다고, 그러자면 설비들을 만반하로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가까운 몇해안에 신발

생산설비들을 다 현대화할것을 계획하고있다는 사실을 로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잠시 생각해 잠기시였다가 설비를 현대화하는 그자체가 기본이 아니다, 문제는 일꾼들이 신발생산설비를 현대화하는 목적을 똑바로 인식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설비현대화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신발을 더 많이 차메지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설비현대화를 이런 관점과

## 인민을 위하시는 뜨거운 마음

관점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일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고 맵시있는 신발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의 뜻이 어퍼와 앞으로 생산을 잘하여 인민들에게 좋은 신발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그들의 결의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신발생산에서 기본인 원료, 자재보장 문제와 신발의 질을 보다 높일데 대한 문제 등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치시였다. 지금까지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일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고 맵시있는 신발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의 뜻이 어퍼와 앞으로 생산을 잘하여 인민들에게 좋은 신발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그들의 결의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신발생산에서 기본인 원료, 자재보장 문제와 신발의 질을 보다 높일데 대한 문제 등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치시였다. 지금까지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아주 잘하여왔는데 이미 달성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 잘하여야 한다고 고주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공장에서 현대적으로 꾸려놓은 온정원과 동물사도 돌아보시며 생산문화확립에서 공장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치하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떠날 때가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공장에 왔던 기회에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공장건물을 배경으로 일꾼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남기시였다. 그이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공장에서 일을 더 잘하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인민들의 행복을 쫓아내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설것을 바라시며 크나큰 믿음과 온정을 부여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관점에서 설비현대화를 적극 다그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도를 기어이 실현할 드높은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기자

###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장성택동지



주제 35 (1946)년 1월 22일에 출생하였다. 동지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시당 지도원, 1972년부터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부파장, 파장, 부부장, 제1부부장, 부장으로 사임하였다. 동지는 주제 96 (2007)년부터 당중앙위원회 행정 부장으로 사임하고있다.

### 내각부총리 강능수동지



주제 19 (1930)년 2월 21일에 출생하였다. 동지는 인민군대에 복무하고 제대되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문학전문가의 자격을 받았다. 동지는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지도원, 당중앙위원회 창작실장, 작가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4.15 문학창작단 단장,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 문화상으로 사임하였다. 동지는 주제 99 (2010)년 1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당중앙위원회 영화부 부장 겸 국가영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임하였다.

### 내각부총리 김락희동지



주제 22 (1933)년 11월 11일에 출생하였다. 동지는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사임하였다. 동지는 주제 94 (2005)년부터 현재까지 황남도당 책임비서로 사임하였다.

### 내각부총리 리래남동지



주제 27 (1938)년 6월 25일에 출생하였다. 동지는 평양기계대학을 졸업하고 금속가공기사의 자격을 받았다. 동지는 라남관광기계공장 직장장,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부파장, 파장, 강선제강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 남포시행정경제위원장, 황해체첵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 도당책임비서,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로 사임하였다. 동지는 주제 98 (2009)년부터 현재까지 평남도당 책임비서로 사임하였다.

### 내각부총리 전하철동지



주제 17 (1928)년 4월 22일에 출생하였다. 동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질물리탐사전문가의 자격을 받았다. 동지는 과학원 연구사, 실장, 당중앙위원회 파장, 지질총국장, 광업부장, 정무원 책임참사, 평남도당 경제비서, 도경제지도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부장, 금수산의사당서기실 책임서기로 사임하였다. 동지는 주제 95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당중앙위원회 계획재정부 부부장으로 사임하였다.

### 내각부총리 겸 기계공업상 조병주동지



주제 31 (1942)년 12월 1일에 출생하였다. 동지는 통성기계대학을 졸업하고 기계제작기사의 자격을 받았다. 동지는 통성기계공장 지도원, 직장장, 함흥압축기공장 지배인, 통성기계연합총국장, 통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사임하였다. 동지는 주제 94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계공업상으로 사임하였다.

### 내각부총리 겸 전자공업상 한광복동지



주제 35 (1946)년 3월 18일에 출생하였다. 동지는 김책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전자공학기사의 자격을 받았다. 동지는 기계공업위원회 지도원, 책임지도원, 기계공업성 부상으로 사임하였다. 동지는 주제 98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자공업상으로 사임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항일혁명선렬들로부터 새 세대들이 이어받아야 할 가장 값높은 재부이며 사람들을 견결한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귀중한 정신적유산입니다.》** 주제 91 (2002)년 10월 중순 어느날이었다.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현지시찰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대편하의 한 중대를 돌아보실 때였다.

꼭 들어찬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운데서도 병실앞에 서있는 한그루의 붓나무는 류다르게 싱싱한것으로 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병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한동안 그 붓나무를 신중히도 삼지연못가의 붓나무와 비교하시였다.

한 일꾼으로부터 이 사연을 보고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병실앞에 있는 붓나무를 삼지연못가에 있는 붓나무와 똑같이 생겼다고 하여 군인들이 병실을 건설할 때 찍지 않고 잘 보존하였다고 하는데 정말 신중하다고 하시면서 항일유격대의 생활기공과 투쟁기공을 본받아 병실을 활활하게 꾸리고 훈련과 군생활을 잘해나가고있는 중대군인들을 치하해주시였다.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해나가는 중대군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한그루의 붓나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려는 군인들의 순결한 마음에 뿌리를 둔 한 그루의 붓나무는 오늘도 그날의 감격을 소중히 간직하듯 푸른 잎새들을 한껏 펼치고 끝없이 설레이고 있다. 본사기자

미제와 남조선적폐당의 대사상에 계절이 없어야 날로 악랄해지는 반공화국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총대를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 강성대국건설에 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나가고있다. 혁명의 총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담보하는 혁명의 총대는 곧 우리의 자주이며 존엄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어느 한 기회에 이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빛나게 해결한 독자적인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 주제 89 (2000)년 9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 한 일꾼을 부르시였다. 그 일꾼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지금 적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총대는 당과 조국, 인민을 지키는 신념의 총대, 의지의 총대라는 총대사상을 밝혀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조선의 혁명가라면 마땅히 총대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총대와 같이 대바르게, 역세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상만물이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는것이 바로 우리의 총대사상이라고, 자연에는 계절이 있어도 총대사상에는 계절이 없어야 한다고 힘있게 강조하시였다. 여기에는 이 땅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계급의 총대는 언제나 녹슬지도 흔들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상, 총대를 틀어잡은 혁명가의 심장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신념, 원주적결의 의지로 불타야 한다는 총대사상이 밝혀져있다. 총! 그것은 단순히 총알을 날리는 쇠불이가 아니다. 우리가 역세게 틀어잡은 총에는 사상이 있고 피가 있으며 넓이 있다. 아무리 현대적인 무기라 하더라도 사상을 떠난 총대는 하나의 막대기보다 못하다는것이 력사가 가르쳐준 교훈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순간도 멈춤이 없이 계급의 총을 버려오지 않았었다. 우리 혁명의 만능의 보검인 총대를 떠나 조국과 혁명에 대하여, 역세게 이어지는 선군혁명천만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일일단결된 우리 인민의 총대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킬수 있는 생명선이다. -우리의 자주이며 존엄인 총대가 든든하여야 우리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할수 있으며 이 땅위에 강성대국도 건설할수 있다. 선군시대에 더욱 빛날치는 이 총대철학에는 제국주의가 살판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혁명가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며 사회주의를 지키자 하면 반드시 총대와 용명을 같이하여야 한다는 철리가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활명희

### 한 그 루 북 나 무



#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은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 모략책동을 당장 걸어치우라

## 평안남도, 함경북도군중대회 진행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대결모략책동을 폭로규탄하는 평안남도, 함경북도군중대회가 4일과 5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들은 장장 60여년간 조국의 절반땅을 타고앉아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제침략자들과 무모한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리면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는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군중의 증오와 적개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주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괴하자!》, 라는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다.

대회들은 지방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일군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군중대회에서는 리태남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2. 8혁명전선반파쟁쟁리경성,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평성시 청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최병남,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평성사범대학 학생 장승철,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도전자업무연구소 연구사 안성

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천안》호침몰 사건은 미제의 비호와 조장밑에 역적패당이 꾸민 모략극으로서 이를 우리와 연계시키려는것은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침해도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북남관계사에 류폐없는 광대국을 조약한 리명박역적패당을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미국의 무리라고 비판하였다.

피뢰역적들이 머리를 흥계를 꾸미며 잔명을 부지하려고 날뛰지만 그것은 망상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만약 원수들이 감히 덤벼들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의 민족적정당성을 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토고문, 위무성 대변인담화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강력한 군력을 가지고있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부분별한 전쟁책동을 단호히 거부서버릴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적들의 진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어놓고 산악같이 떨쳐나

고조열풍을 더욱 거세하게 일으켜 갖가지 소비품과 전력, 석탄 등의 생산을 높여야 당면한 영농작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간지켜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올해공동사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주호를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 대한 혁신, 대박을 일으키고 전설을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며 장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군중대회에서는 홍성형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김책체첵련합기업소 기사장 김광남,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청진시 청암구역 청암협동농장 작업반장 리경희,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청진시청년동맹 1비서 박강철,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청진광산금속대학 부학장 황영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도내 전체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천안》호침몰사건을 날조한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파렴치한 행위를 준엄히 단죄규탄하였다.

함선원불사건의 조작은 퍼뜨림의 단 말마디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이 무모한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을 당장 걸어치울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그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역적무리의 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원수들의 도발적인 군사적움직임에 강력하게 대처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투철한 수령계사용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지니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 당의 선군명예따라 경제건설에서 보람과 성과를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김책체첵련합기업소와 성진체첵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내 공장, 기업소토동계급은 중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헌신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마다에서 청춘의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지식인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실천적성도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만약 미제와 남조선역적패당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정의의 보복성전에 용약 떨쳐나 원수들을 쓸어버리고 이 땅우에는 민족이 강성하는 통일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적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 이 성취하고야말 철칙의 의지를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과학기술중성서에 비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온갖 애비를 남김없이 찾아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대교조 들끓던 지난 어느날 저녁이었다. 공무작성반을 지나던 초급당비서 김용복동무는 기일이 늦기 소

문난 김동무가 그 무렵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설계도면을 놓고 생각을 굴리는 초급당비서를 마음속에 짚어보는 김동무는

머릿집 과학기술중성서를 수여하는 모임에서 일부 기술인들에게 대안평가를 해주었다.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며 새로운 창고안을

찾기 위해 애쓰는 로동자들을 평가해주시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평가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당일군들이 평가사업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 새책도 기술인제도 제대로 가려지지 못하며 나중에는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무뎠게 된다는 바로 그 점이였다.

### 강서은하회복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이를 계기로 초급당위원회는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깊이 들어가 새책을 빠짐없이 찾아내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온갖 애비를 남김없이 찾아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대교조 들끓던 지난 어느날 저녁이었다. 공무작성반을 지나던 초급당비서 김용복동무는 기일이 늦기 소

문난 김동무가 그 무렵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설계도면을 놓고 생각을 굴리는 초급당비서를 마음속에 짚어보는 김동무는

머릿집 과학기술중성서를 수여하는 모임에서 일부 기술인들에게 대안평가를 해주었다. 모르는 노력을 기울이며 새로운 창고안을

찾기 위해 애쓰는 로동자들을 평가해주시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평가사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당일군들이 평가사업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 새책도 기술인제도 제대로 가려지지 못하며 나중에는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무뎠게 된다는 바로 그 점이였다.

### 사업에서

들을 기술혁명수행에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초급당일군들은 새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는 기술자, 기능공들과 교

락도 함께 나누었다. 고심어린 탐구로 밤을 지새 때면 그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걸음은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걸음은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걸음은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걸음은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걸음은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걸음은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걸음은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걸음은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걸음은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걸음은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걸음은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걸음은 도와주면서 성공의 한

# 주체농법의 연구대로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친다

## 좋은 경험을 찾아 일군들의 사업에서

정주시안의 협동농장에서 모내기전투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다. 시안의 일군들과 농장일군들은 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모내기의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이 성과는 일군들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일본새를

떨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령도방식, 사업기풍을 따라배워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와 변화된 환경에 맞게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모내기때에 노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시의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 방도를 찾지 않았다. 시당책임일군이 지난해 모내기에 좋은 성과를 거둔 모내기협동농장 제8작업반에 나갔을 때였다. 그는 이 작업반의 모내기와 관련한 작업경정로력동원정형을 구

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작업반에서는 모내기때에 노력을 총집중시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한 좋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모판자리를 바로 정하여 모운반로력을 줄이면서도 모내기실적을 높인것도 있었다. 일반화할 가치가 있는것이였다.

이곳 작업반에서는 모판을 한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모운반로리가 맞출때 모판마다에 구획을 짓고 모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판이 넓어져 있는 조건에 맞게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안

해를 모판관리공대원을 꾸려 그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모판이 모전가이에 있으면 모판보다 모내기속도를 2배이상 높이며 필요한 모를 중단없이 공급할수 있었다. 또한 운반도중 모가 상하거나 마르는 현상이 없었던것은 물론 모가 자란 정도에 따라 모전별로 모를 뽑으로써 모내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같은 땅에서 모를 자래워 모내기를 하니 모살이가 빠르고 충해없이 잘 자라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여기에 영양행상모를 받아들여 모판구획을 작게 정하니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모를 실하게 키울수 있었다. 이것은 지대특성과 현실조건에 맞게 논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

도였다. 시일군들은 이 경험을 모든 농장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였다. 그리고 농장들에 내려가 모판자리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내밀었다. 모든 농장 작업반, 분조들에게는 기간에 이런 방법으로 모판을 만들고 써볼때를 하였다.

예견했듯이 모내기시작부터 그 은이 나타났다. 어느 농장에서나 올해에는 지난 시기 못뜨기, 모운반을 하던 많은 농장원들을 모를 내는 데 집중시킴으로써 모내기

였다. 이 농장이 앞선 농장들과 어깨나란히 모내기성과를 높여나가고있는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을 계기로 모든 농장 일군들의 경정심이 더 높아졌다. 농장들마다에서 모내기전투를 앞두고 보여주기대상을 바로 정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결과 시안의 어느 농장, 어느 작업반, 어느 분조나 할것없이 모든 단위가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해나

가게 되었다. 농장들에서 트랙터드들의 만가용을 보장하여 써베지기를 앞세움으로써 모내기성과를 높여가고있는것도, 농기구와 영농자재보장대책을 잘 세워 모내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는 것도 다 시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농장의 드높은 열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깊이 사색하고 방도를 깊이 실천하고 있는 시일군들의 일본새는 긍정할만 한것이다. 본사기자 정영철

## 앞그루작물수확준비를 잘하자

앞그루작물가을걷이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앞그루작물가을걷이는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야 하는 시기를 다루는 영농작업인것만큼 그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확준비를 잘하는것은 앞그루작물수확을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앞그루작물가을걷이준비를 잘하여야 밭, 보리, 감자 등 애써가꾼 농작물을 제때에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고 뒤그루작물심기를 적기에 할수 있다. 최근 전반적인 농촌들에서 두벌농사면적이 늘어난 실정에서 앞그루작물가을걷이준비를 잘하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나선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앞그루작물수확을 높이기 위하여 애써가꾼 농작물을 제때에 와닥닥 거두어들이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 준비에 각별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일군들은 두벌농사조건을 일일이 밟아보면서 앞그루작물이 어무는속도 가늠할수 있게 일정계획을 포전별로, 날자별로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협동농장들의 가을걷이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트랙터드와 수확기,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준비를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앞그루작물가을걷이와 뒤그루작물심기는 동시에 와닥닥 해제해야 하는 영농작업인것만큼 기

계화의 비중을 높이지 않고서는 그 시기성을 보장할수 없다. 각작 농촌들에서는 트랙터드와 수확기수리정비를 다그쳐 앞그루작물수확하는속도 운반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 군농기계작업소들과 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들에서는 농기계를 잘 수리정비하는것과 함께 만가용모양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추어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탈곡기를 원만히 수리정비함으로써 베어들이는 밭, 보리를 제때에 털어낼수 있게 하여야 한다.

중소농기구준비도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실정에 맞는 운반수단들과 소농기구들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일단 앞그루작물가을걷이가 시작되면 와닥닥 끝낼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탈곡장보수정비를 잘하고 날갈전조작책을 세워야 한다. 수확한 밀, 보리는 수분이 많기때문에 잘 말려주지 않으면 썩이 나오거나 부패변질될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탈곡장바닥과 건조로, 창고들을 잘 보수정비하여 비가 와도 날갈을 제때에 건조시켜 보관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애써 거두어들이는 날갈을 한달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앞그루작물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함으로써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최일호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문천군 상합협동농장에서- 리진명 찍음

## 벼모를 실하게 키워낸 비결

### 문천시 가평협동농장에서

문천시 가평협동농장에서 실한 벼모를 키워 보장해줌으로써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최정기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놓았다. 이 성과는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형식에 치중하지 않고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 작업반실적표앞에서 농장일군은 한가지 사실을 포착하게 되었다. 모내기실적이 높은 작업반들은 벼모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깊이 파헤쳐보았더니 일기예보에 맞게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한데 있었다.

낮과 밤온도의 차이가 심하고 때없이 비바람이 부는 일기조건에 맞게 모판관리를 바로하지 못하면 벼모생육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였다.

농장일군들은 이 문제를 농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일기예보를 작업반과 분조, 모판관리공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바로세워놓고 그에 맞게 기술지도를 따라

라세우자는 안이 모두의 도움을 받았다. 농장기사와작업반기술원들이 일기예보에 따라 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을 책임지고 할데 대한 분공도 조직되었다. 일군들은 이렇게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고 그것이 어김없이 실현되도록

안장에서 뛰었다. 결과 그

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모판관리공들은 작업반기술원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농장에서 받은 일기예보에 기초하여 모판의 행배방식, 농약과 비료치기, 물대기와 물대기, 해빛조이기 등 모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

가게 되었다. 농장일군들은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는 제2작업반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 경험을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 전수하여 일기예보준비를 중시하고 정당한 체계를 세워 기술지도도를 따라세운 결과

모는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불리한 날씨에 계속되는 속에서도 튼튼한 벼모들을 길러내어 모내기를 중단없이 내밀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순홍

## 포전마다 물을 넉넉히

### 은 파관관개관리소에서

가동률과 리용률을 높여 알곡생산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하고 한사람같이 결의 해나갔다.

모든 양수동력설비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고 단위 시간당 많은 물을 공급할수 있게 일부 양수장들을 옮기거나 새로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공무작성반과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양수동력설비의 수리정비를 제때에 끝내기 위한 투쟁의 양장에

었다. 그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여 수십종에

1만여점의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여 양수동력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맡

다. 그리고 전문기관 일군들의 방조밑에 그 어떤 조건에서도 물을 충분히 공급할수 있게 양수설비들도 개

조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파관관리소의 작업반들이 물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기 위한 전투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군안의 농장들에 내려가 양수장들과 물길, 파관면적 등을 돌아본 일군들은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파관시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어려 작업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해제했다. 파관용수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운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협동농장들의 포전에 나가 물보장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한방울의 물도 허실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가고

있다. 특히 영농공업공정이 바뀌어지는데 맞게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그리고 파관시설관리에 계속

힘을 넣어 그 리용률을 높여나가고있다.

이들의 혁명적열정에 의하여 양수기들의 만가용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생명의 소가 모전들에 넘쳐흘러 모내기성과를 담보해주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본사기자



사회주의협동법에 더 많은 물을 보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서흥호지수관개관리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모내기전투장을 짧게 하는 힘찬 경제선동

모내기전투를 고무추동하는 경제선동에 전국의 모든 작가들이 힘차게 떨쳐나섰다.

전투적인 시가작품들은 위훈으로 부른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대성구역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과 탁량구역 정백남새전문협동농장에 달려나 다채로운 시가작품들을 통한 경제선동을 진행해나가고있다.

시들을 창작하여 들끓는 현전에서 벽시전시를 열었으며 격동적인 시방송과 방송선 등으로 포진마다에서 혁신의 기상이 내뿜어졌다.

신발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발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발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발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발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발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발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발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발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실장을 울리는 선동의 북소리

각지도 예술선전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신력발동이 안아온 기적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에서 긴절한 문제를 풀며

신발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 참가자들 뜻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7일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 참가자들이 뜻바구니를 진정하였다.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 개막

대표단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시동맹위원장인 개막연설을 하였다.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주제로 하여 7일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가 개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897호 주체99 (2010)년 6월 1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26호모범기대명예상> <26호모범기대명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 참가자들은 만경대 방문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진행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는 7일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에서 진행되었다.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평양 6월 7일날 조선중앙통신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7일 인민대학당에서 진행되었다.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 참가자들은 만경대 방문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중국방문 조선청년친선대표단 출발

평양 6월 7일날 조선중앙통신 중국을 방문하는 리광창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

중국방문 조선청년친선대표단 출발

평양 6월 7일날 조선중앙통신 중국을 방문하는 리광창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주제로 하여 7일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가 개막되었다.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주제로 하여 7일 평양국제보호토포론회가 개막되었다.







# 활짝 꽃피는 조종친선의 화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념 중국방문은 조종친선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애드 캐프틸수 없는 불멸의 친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시금 힘있게 시위한 력사적사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중국을 방문하시어 조종친선협조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키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립장을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상봉한 중국의 지도 간부들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에게서 마련해주고 장구한 혁명의 불길속에서 피로써 다져진 조종친선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것은 중국당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면서 중국 당과 정부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이 자랑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고 말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은 조종친선의 역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은 위대한 장거로서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국제사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역사적인 중국방문을 조종사이의 삶을수 있는 친선관계와 그 생활력을 세계에 파시한 일대 사변으로 격찬하고있다. 세계적으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종친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한

나와 방문은 조종친선을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심도있고 활력있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되었다.

두 나라에 있는 친선공장, 친선농장, 친선도시, 친선학교 등은 조종친선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조선과 중국사이에 교류와 협조가 끊임없이 확대강화됨으로써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종친선의 해》 행사들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교류를 강화하고 조종친선발전에 활력을 부여주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에 이어 우리 나라 피바다극단단의 가극 《홍류동》이 중국에서 대성황리에 공연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연극 《네온등의 초병》이 장차 공연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조종친선의 강화발전을 추동하였다.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조종친선의 제부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조종친선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보다 강화되고 커다란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조종 두 나라 당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의 귀중한 결실이다.

중국인민은 곤련하고 재능있는 인민이다. 중국인민은 헌신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으로 지난날 랍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광활한 중화의 대지우에 부강발전하는 사회주의 새 중국을 일떠

# 너절하고 간특한 처사

일본이 미국상선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고있다. 남조선의 《천안》호침몰사건이후 일본은 눈물사냥개 상선이 불어대는 반공화국계열나팔을 맞아서 《국제적협력》과 《공조》를 떠들며 양장서 복을 쳐왔다. 이러한 일본이 최근에는 강경스럽게 우리 나라에 대한 어지러운 제재바람을 일으키고있다. 그들은 미국이 모략적인 이념 사건을 걸고 우리에게 대한 제재소동에 열을 올리자 저들도 덩달아 조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보다 강화할것》이라고 췌쳐대는가 하면 우리의 존엄높은 해외동포조직인 총련에 대한 탄압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화물검사특별조치법》까지 채택하면서 개기를 부리고있다. 이른바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은 우리 나라에 드나드는 선박이나 비행기가 핵 및 미사일관련 부분품을 적재하고있다고 《의심》될 경우 해상보안청과 세관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더우기 이 《법》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에서도 우리 나라 선박에 대한 단속과 검사를 요구하고있다. 동서남북도 가리지 못하고 마구 헤집버대는 어찌구무없는것이다. 이것은 상선의 반공화국계열책동에 적극 가담하여 우리 공화국을 어찌로든 일본의 망동이 극단에 이르고있음을 말해주고있다.

일본은 미국, 남조선피괴들과 한쪽이 되어 우리를 모략적인 합선침몰사건의 《주변》으로 기성시화해나가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명백해지고있는바와 같이 《천안》호침몰사건은 철두철미 미국의 승인과 비호, 조장하에 남조선피괴들이 조작해낸 서론 모략극, 남조선어이다. 일본은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하여 황실수설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형세가 어떻게 흐르지도도 모르고 상선의 장단에 무작정 맞장구를 치며 대조선제책동에 광분하는 일본의 처사는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일본이 미국의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발벗고 합세해나서면서 대조선제책실시에 극성을 부리는 리면에는 제침야망을 거머쥐어 실현하려는 독기 어린 군국주의야심이 깔려있다.

일본은 력대적으로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저들의 침략야욕실현을 추구해온 너절하고 간특한 나라이다. 역사를 소중해보면 일본은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미국과 체결한 《타프트-가쓰라협정》을 띠고 우리 나라를 침략

하고 뒤이어 아시아정복의 길에 나섰다. 이러한 일본이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의 침략적인 《반테로전》을 기화로 것처럼 갈망하던 해외침략의 문을 열어제었다.

미국을 하네비처럼 섬기며 상선의 거드름이 고 불어 야구야구 해외침략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일본은 《천안》호침몰사건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있다. 일본이 지난해부터 론가 분분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천안》호침몰사건이 터지자 그것을 핑계대고 급기야 채택한 사실은 그들의 모리간상배척기질과 리속을 가늠게 한다.

일본은 명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선박검사법》을 한다는 강도저렴리를 내놓고 해외침략, 더 정확히 말해서 조선제정의 발판을 닦으려고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일본반동들은 어찌이 크게 《선박검사》의 미명하에 멀리 경외로 배척이 뛰쳐나가 강권을 행사하려 하고있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장래생명을 하지 않은자 불행한 날을 면할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일본이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극심한 대조선적대시감정을 드러내며 상선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제책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제스스로 합정을 놓는 어리석은것이다. 일본의 총련탄압책동에 따르고 명백히 해를 끼친다. 총련탄압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탄압한 첩해이며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대한 유린이다. 이것은 일본의 파조적기질과 본성, 도덕적저렴성과 교악성을 여실히 드러내보여준다.

일본이 제재와 총련탄압소동으로 우리를 놀래우고 압박하여 그 무엇을 얻을수 없는것은 가소롭다. 일본은 이 어떤 핑기와 술책도 우리 인민을 어찌지 못한다. 핵무기보다도 위험한 일민단결의 보검과 정신력을 가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디에는 한하들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수, 백년속적 일본에 대한 적개성과 복수심이 활화산마당 타버리고있다. 제재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대답하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자주적대응방식이다.

일본이 미국상선의 장단에 춤을 추며 조선반도사태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너털대는 것은 랑패를 볼수 있다. 일본은 우리의 경고를 깊이 새기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배 금 회

# 조선의 당당한 자위권행사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집행위원회가 날로 악랄해지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도당의 반공화국책동을 규탄하여 5월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 일본은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종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연계시키면서 비탄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이러한 비탄은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이 오직 조선을 반대하는 대결을 강화하기 위한데 집중되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날조된 자료는 남조선은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을 오도하는 데 리용되고있다.

조선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방향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은 이 지역의 정세를 무단히 격화시키면서 평화를 위협에 빠뜨리고있다.

오래동안 계속되고있는 미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선은 보다 침략적이고 후안무치한 형태로 띠고있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혼란 불안정대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천안》호침몰사건에 조선이

여러 나라 정당들이 성명 발표

《천안》호침몰사건을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합동자작으로 띠인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그 누구의 책임도 의한것이라고 오도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조종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괴롭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파렴치한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합선침몰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주고 그들 구실로 조종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국건설과 조종통일위업을 가로막으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있는 데 대해 폭로하였다.

끼르키스스탄끼르키즈어린민통일공화국정당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여 5월 3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전가시키면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데 대하여 가 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세계는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에 주의를 집중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추악한 적대시정책

미국과 남조선, 일본은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종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연계시키면서 비탄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이러한 비탄은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이 오직 조선을 반대하는 대결을 강화하기 위한데 집중되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날조된 자료는 남조선은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을 오도하는 데 리용되고있다.

조선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방향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은 이 지역의 정세를 무단히 격화시키면서 평화를 위협에 빠뜨리고있다.

오래동안 계속되고있는 미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선은 보다 침략적이고 후안무치한 형태로 띠고있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혼란 불안정대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천안》호침몰사건에 조선이

#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회 조정자회의 진행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회 조정자회의가 5월 15일과 16일 중국 홍콩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 일본군 《안부》 및 강제징용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대표단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회 조정자회의에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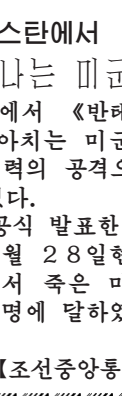
회의에서는 일제의 패망 65년, 비법적인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올해에 일제의 반인륜적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회 조정자회의가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회 조정자회의》로 정하고 이 기간에 피해자중심연대, 언론을 통한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폭로사업, 일본대사관앞에서의 항의행동과 대조선인성명운동등 진행하며 대조선인자녀들의 민족교육리력을

보장하고 과거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를 조사하여 해당 나라들에 반환할것을 요구하는 활동도 적극 전개해나갈데 대한 문제, 국제연대회의회 및 단체와의 연계와 관련한 문제 등 일본의 반인륜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고 일본정부가 과거청산을 위한 실질적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동들을 적극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토의결정하였다.

본사기자



브라질의 산 파울로 시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돌아오는 미군

#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

파키스탄수상 마르코 세에드 유수프 라자 길라니가 5월 31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야수적만행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국제인도주의적선언에 군사적공격을 가한것은 국제법에 대한 반목적인 위반으로, 불법무도한 범죄행위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대북풍이라는니,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였다.》는니 하면서 조사놀음을 계속하였다.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해강 51》호는 《소요》호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일본선박은 바빠맞아 풍무니를 사리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교부대변인은 자국의 해양조사선이 중국동해에서 일본해상보안청의 측량선을 추적한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중국동해와 조어도의 명유권을 둘러싼 문제에서 중국의 립장은 일관하며 명확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자국이 해상보안청 측량선의 활동과 관련한 중국의 원칙적인 립장에 대해 사전에 일본측에 통고하였음을 밝히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일축해버리었다.

조어도문제를 둘러싸고도 중일사이의 대립이 커지고있다. 최근 일본은 조어도가 《일본영토》이라고 강변을 부르면서 조어도문제를 둘러싸고 일 중사이의 군사적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도 《일미안전보장조약》에 따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중국은 조어도와 그 주변섬들은 예로부터 자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그에 대해 할어던 여지도 없는 주권을 가지고있다고 밝히고 《일미안전보장조약》은 쌍방사이의 《조약》으로서 우방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리익에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미국을 개입시키려는 일본에 반박을 주었다.

# 간 나오프 일본수상으로 선거

일본에서 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간 나오프가 수상으로 선거되었다.

그는 4일 국회 총 의원본회의에서 진행된 수상지명선거에서

일본의상은 전세계가 핵군축을 추진하는데 힘을貸고있는 속에서도 중국이 핵군축공약을 리행하지 않고 핵력장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일본은 《강한 우려》를 느끼고있다는니 뵈니 하고 중국의 강경을 심히 자각하였다.

일본의 외교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중국을 결코는데 대해 중국이 즉시 반박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완전히 철폐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있으며 자위적이며 방위적인 핵전략을 실시하고있다. 중국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있다. 중국은 그 어떤 형식의 핵군비경쟁에도 참가한적이 없으며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배비하지 않고있다. 중국은 자체의 핵력장을 국가안전에 필요한 최저수준에서 계속 유지할것이며 이자체가 바로 중국국제적인 핵군축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한 독특한 공헌으로 된다. 중국의 립장은 정당하다고 누구도 비난할것이 못된다 라고 강조하였다.

사실들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저들의 리기적책육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리익을 침해하는 일본의 불온한 행동으로 하여 중일사이의 모순과 마찰이 격화되고있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채 일 출

# 원유류출사태로 궁지에 몰리는 미행정부

보도원비와 같이 지난 4월 20일 미국의 메히코판에서 한 영국회사의 시추시설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하여 메히코판해역의 깊이 1500m 해저에서는 매일 수백만L에 달하는 원유가 계속 류출되고있다고 한다.

초보적으로 보아도 지금까지 총 원유류출량은 1억 5000만L 이상에 달하며 메히코판일대 200여km를 오염시켰다고 한다. 이것은 1991년에 메사사만정에서 파피린 쿠웨이트유전에서 원유류출량과 1989년에 알라스카에서 알바다에서 발생한 미국력사상 최악의 원유류출사고(약 4200만L)를 훨씬 통가한것으로 된다.

미국에서는 이번 원유류출사태를 어쩔때나도 선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함을 띄우고있다. 대우모던 원유류출사고가 난 이후 해당 국가가 원유류출사태를 막느라 고 모지름을 쓰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다. 최근에도 원유류출사태에 접성인 높은 다량의 부가물 진흙을 밀어넣어 봉쇄하려 하다가 또 실패하였다.

원유류출이 장기화되면서 메히코판해역을 뒤덮는 원유는 미국남부의 해안지역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면서 계속 퍼지고 있다. 그 주변의 어장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양식업이 타격을 받고있으며 관광업도 파괴되고있다.

기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고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원유미가 오바바를 던졌다고 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행정부에 대한 원용력을 조소하였다.

미국은 한 언론기관은 팜블 판리국이 원유회사들의 시추신청을 승인해주는 데가로 1년에 140억달러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아먹는 제미로 하여 이번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서 부패한 오바바행정부를 공격적으로 비판하였다.

지난 5월 구바의 피델 카스트로동지는 메히코판에서 원유류출로 초래된 생태학적재난은 《정부가 어떤 비탄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가장스러운 견제적기세에 강요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바바는 현실을 무시하고있다. 그는 그것을 극복할수도 없으며 극복하려고도 하지 않고있다. 오바바는 공상의 세계에 잠겨 비현실적인것들을 꿈꾸고있다.》고 혹평하였다.

미국에서의 이번 원유류출사태는 오바바행정부에 있어서 커다란 골칫거리로 되고있다. 이 문제로 하여 오바바행정부는 궁지에 몰리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데 골몰할것이니 아니라 제 집안문제를 푸는데 정력을 기울이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오늘의 세계

중국과 일본사이의 일련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마찰이 커지고있다.

우선 중국동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사건과 관련하여 두 나라사이의 모순이 커지고있다.

지난 5월 3일 중국 동해상에서 중국의 한 선박이 일본의 한 선박을 추적하였다. 중국선박은 중국국가해양국의 해양조사선 《해강 51》호이며 일본선박은 일본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소요》호이다.

이날 《소요》호는 그 무는 지각구조를 조사하고있다고 한다.

중국선박이 일본선박을 추적한 곳은 일본 아미모시마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중국동해상이라고 한다. 이날 오후 중국 《해강 51》호가 《소요》호에 무선으로 《이 해역은 중국의 규제가 적용되는 해역이다.》라고 하면서 《소요》호에 조사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요》호는 이것은 《일본의